



## 2011년 4/4분기 중국 외환보유액 감소

왕양비 연구원

- 2011년 4/4분기 중국 외환보유액이 1998년 2/4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분기대비 14.5% 감소하였으며, 감소의 주요인으로 핫머니의 대량 유출이 지적됨.
  -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2011년 10월 전월대비 721억 달러 증가한 외환보유액은 11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하여 4/4분기 말 기준 3조 2,000억 달러를 기록함.
  - 이에 WSJ는 2011년 중국 외환보유액 감소는 외국인 직접투자(FDI) 및 무역흑자 증가세를 감안할 때 핫머니의 유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.
  
- 2011년 4/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2009년 2/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위안화의 절하 기대로 해외자본이 이탈함.
  - 2011년 긴축정책과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등으로 중국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2011년 중국 GDP 성장률은 2010년 10.4%에서 9.2%로 하락함.
  - 2011년 10~11월 중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부각되면서 홍콩 위안화 역외거래시장에서 위안화 매각과 달러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함.
  
-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2012년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을 고려할 때 금번 해외자본 대량 유출이 2012년 통화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각국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.
  - 2012년 중국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긴축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 등과 같은 통화당국의 완화정책은 오히려 해외자금 유출을 확대시킬 수 있음.

(봉황재경, WSJ, 1/13 등)